삼도시호 3월 10일 파종 수확량 가장 많아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시험

◇삼도시호 수확장면.

전남지방에서 「삼도시호」를 재배할 때는 3월 10일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일 「삼도시호」를 파종한 결과 10a(3백평)에서 마른뿌리 기준으로 63.9kg이 생산됐다.

이 10a당 수확량은 4월 10일 파종때의 수확량 36.7kg 보다 74.1% 증가된 것이다.

또 3월 20일에 파종했을 때는 10a당 53.1kg, 3월 30일 파종 때는 47kg의 마른뿌리가 각각 생산됐다.

삼도시호는 4월 20일~4월 말 사이에 대부분 발아하는데 18℃가 삼도시호발아 적정온도이다.

樹液으로 캔음료 만든다

고로쇠·자작나무서 추출

전라남도 농촌진흥원과 공동으로 고로쇠와 자작나무의 수액 상품화 연구에 착수 7월말 수액에 당분과 향신료 등을 첨가한 캔포장에 성공 40통의 제품을 생산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체 시음회를 가진 결과 당분 함유율이 다소 높다는 것 이외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9월중 1백여개의 시제품을 추가로 시음회를 갖고 95년 까지 상품화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함께 수액에 인삼등 다른 식품성분을 가미한 茶개발과 발효주국 개발사업도 타당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강원도내의 경우 춘천도 동면에 4천여ha의 고로쇠나무와 자작나무등 활엽수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은 지난해 캔음료를 만든다.

그것도 일반 청량음료만이 아닌 신경통과 위장병은 물론 이뇨작용이 뛰어나 소화촉진과 고혈압, 성인병에 특효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수요급증의 예상과 함께 나무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된다.

고로쇠와 자작나무가 그 문제의 나무.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한 나무에서 수액을 추출해 캔음료를 만든다.

농정감시회의 발족식

9월12일 농업기술진흥관서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발족식 및 토론회 장면.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발족식이 9월12일 오후3시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렸다.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박덕영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우리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이에 우리 농민단체 일동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를 발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참가단체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포도회 등 12개 단체이다.

구기자 신제품개발

간기능 보호와 각종 성인병 예방,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충남 청양의 구기자가 농축엑기스와 술안주, 즙류수 등으로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충남도 농촌진흥원은 지난 6일 구기자의 효능확대에 관한 연구를 해온 노재관 연구팀에서 최근 8종의 구기자 이용제품 개발에 성공,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구기순과 갈근을 주원료로 만든 칵테일제의 경우 소주에 혼합하여 알코올에 잘 용해되며 맛과 향이 가미돼 술맛이 좋고 뒤끝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구기자 열매를 이용한 안주류를 볶은 구기자에 들깨와 참깨를 묻힌 독특한 맛으로 맥주 안주와 간식용으로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 설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

우리생약 살리기. 값싼 중국산 한약재에 밀려 정작 우리 생약은 뒷전이고, 저질 수입약재가 국산으로 둔갑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절박한 운동이지만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고를 들여서라도 되도록이면 양질의 생약을 생산해 내려는 재배농민,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국산 약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제약업체, 한약방, 한의원 등)들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UR대체 작목으로서 약용작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장려품목으로 권장해서 고품질의 생약을 재배해 놓아도 값싼 수입 약재를 무더기로 수입해 들여온다면, 그래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의 우리 약재를 외면한다면 그건 이미 사장된 물건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달 23일 본 협회가 맺은 세웅산업(주)과의 수출계약은 작지만 일단은 우리 생약의 판로를 확보 했다는 점에서 협회 산하 재배 농민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또, 한약재가 국민 건강 차원의 농산물이며 수입개방에 맞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작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뜻을 모았다는 사실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국내 생약재가 중국산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생약의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또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구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약용작물 농업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외국산 약재에 대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10배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시장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도 시호나 인삼, 길경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과거에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백작약은 최근 수출길이 막힌 상태이다. 맑은 물에 씻어 사람이 직접 칼로 작약의 표피를 거피하던 것이 과거의 가공법이라면 요즘은 인건비가 적게드는 방법으로, 기계에 넣어 거피하고 태양건조가 아닌 건조장에서 고열 건조시킴으로서 성분이 증발되어 작약의 품질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젠 고품질의 생약 생산은 물론이고 생약의 가공법에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계화를 통해 일단 보기 좋은 포장의 규격화보다는 생약의 고유 성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품질의 규격화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말이다.

몇년 동안 애써 가꾼 생약재가 편의주의적인 가공법으로 품질이 떨어져 수출길이 막힌다면 어이 없는 일이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맞서 우리 생약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모두 노력하자. 차제에 정부도 생산 장려 기금을 마련, 전략 생약재의 재배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생산 농가들이 마음놓고 생약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약용작물의 보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토불이'란 말을 굳이 끼워 넣지 않더라도 우리 산야에서 자란 약재가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 보면,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생약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생약 살리기는 비단 농촌만이 아닌, 모두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라 여겨진 때문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번 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약용작물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신

한국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10월1일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약초재배 및 육종, 성분, 생물공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생약재배농민들에게 약초재배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삼효능심포지엄 인삼연초 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원장 朴明奎)은 9월 8일 대덕단지내 연구원 강당에서 인삼의 효능연구를 주제로 한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참가하는 제5회 생명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정

○…본 협회 조만식 기획실장은 지난 23일 농림수산부를 방문, 잠업특작과 회의실에서 서종호 사무관, 김영술 주사, 농촌진흥청 성낙술 박사, 농협중앙회 황성룡 약용작물과장등과 함께 한약관리규정(초안)에 대한 최종 검토 의견을 교환.

○…본회 김용한 이사는 오는 10월7일 경북대학교 농업개발학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에 강사로 초빙되어 한약재(약초)의 종묘 생산 및 전망에 대하여 농대2호관 교육실에서 강의할 예정.

내방

▲문대규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지대 지부장(충북) ▲이승엽 지부장(전북) ▲박재문 이사 ▲박종연 이사 ▲심재석 이사 ▲장지홍 이사 ▲김정만 사무소장(고성군) ▲조광호 사무소장(정선군) ▲이웅황 사무소장(안성군) ▲이성덕 사무소장(구리시) ▲최상환 사무소장(경주시) ▲이인기 사무소장(포천군) ▲곽해명 사무소장(삭주군) ▲신현석 사무소장(양평군) ▲이한승 사무소장(제천군)

〈1면에서 계속〉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출장소장 양신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출장소장 하창현 ▲이리시 창인동 출장소장 김상곤 ▲이리시 남촌동 출장소장 황석권 ▲전주시 덕진구 경원동 출장소장 김제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출장소장 임우상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출장소장 박평림 ▲완주군 고산면 출장소장 유병식 ▲군산시 경암동 출장소장 강태봉 ▲정주시 시기1동 출장소장 김차성 ▲순창군 구림면 출장소장 권진주 ▲순창군 적성면 출장소장 양병만 ▲순창군 유등면 출장소장 김

(94. 8월 20일부)